

세계 비즈니스 맨의 눈들이 우리 사이트의 콘텐츠를 지켜 본다.

정확성에 입각한 콘텐츠관리는 국제 사이버 비즈니스의 생명

전 세계는 정보검색을 통한 이른바 사이버 무역의 물고를 트고 있다.

이른바 “돈”이 되는 사이트는 그 콘텐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의 경우 중요한 검색 사이트에 링크된 홈페이지들이 텅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전세계에 오픈돼 있는 사이버 공간이기에 향후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콘텐츠 관리야 말로 사이버 비즈니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사이트를 여행하듯 검색하는 비즈니스맨들의 꼼꼼한 눈초리들이 우리의 콘텐츠를 감시하고 있다.

-편집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금까지 전 세계 5개 지역- 서유럽,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의 국제 비즈니스 정보를 살펴보았다. 이제 세계 일주를 거의 끝마쳤지만, 살펴봐야 할 아주 큰 지역이 한군데 남아 있다. 그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서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동반구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일률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언어와 방언, 다양한 신앙과 사회적 규범 및 관습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나라마다 다르다. 이 지역은 개발 도상국가, 미개발 국가, 태국 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생 공업 국가, 일본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이 혼재하는 방대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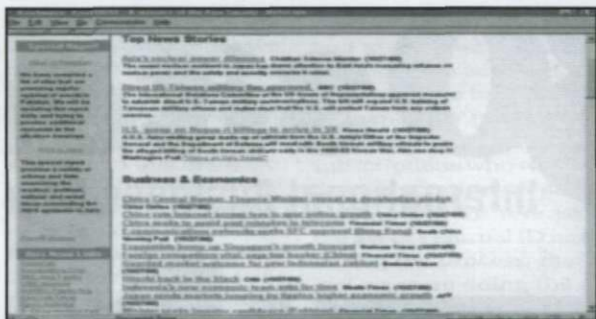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범위로 볼 때, 전체 소스에 들어맞는 한 가지 소스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이상에 관한 비즈니스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여러 개의 소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역이 방대한 데다가 연구 시간에도 제약이 따르고 편집자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관계로 다음에 기술한 내용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현재 뉴스

아시아연구회(Asia Society)는 30개 이상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의식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그곳의 인터넷 사이트인 아시아소스(http://www.asiasource.org/)는 유감스럽게도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별충할만한 몇 가지 기능이 있다. 왼쪽 옆에 있는 "아시아 투데이"를 클릭하면, 당일의 탑 뉴스 기사로 링크된다. 이 뉴스 기사의 출처는 BBC,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파이낸셜 타임즈, 비즈니스 타임즈, CNN 등과 같은 광범위한 정기 간행물 출판업체나 소스들이다. 이 기사는 지역과 범주별로 정리되어 있다.

- 탑 뉴스 기사
- 비즈니스와 경제
- 동아시아
- 남아시아
- 중앙 아시아
- 오스트랄 아시아(호주, 뉴질랜드와 그 부근의 남양 제도)
- 예술과 문화
- 비평
- 잡지 기사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면, 페이지 좌측에 "아시아 뉴스 링크"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통신사, 주간지, 신문, 네트워크 등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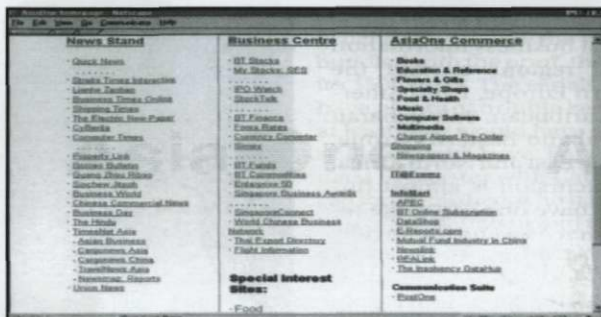
▲ <그림 1> AsiaSource News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페이지 상단의 "정책과 정부" 사이트를 선택하여, 그 페이지에서 중간쯤 아래로 스크롤 하다 보면 오른쪽에 "아시아 정부 디렉토리" 아이콘이 보인다. 이 디렉토리에는 40여개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와 연락처가 들어 있다.

그리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목록들도 들어 있다.

싱가포르와 그 외

다양한 비즈니스 정보와 비 비즈니스 정보가 들어 있는 흥미 있는 사이트는 AsiaOne(http://www.asial.com.sg/) 사이트이다. 1995년 6월 싱가포르 언론사가 출범시킨 이 사이트에는 싱가포르 특유의 정보와 전반적인 아시아 정보가 함께 들어 있다. 메인 페이지에는 최근 뉴스 기사의 헤드라인이 있어서, 그 기사 본문만을 링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간행물의 전체 기사로 링크시킨다. 만약 뉴스를 심도있게 읽을 시간이 없어서 당일 뉴스를 대충 훑어볼 생각이거나, 당일 탑 기사를 요약해 놓은 "빨리 읽기(Quick Read)"를 검색해 보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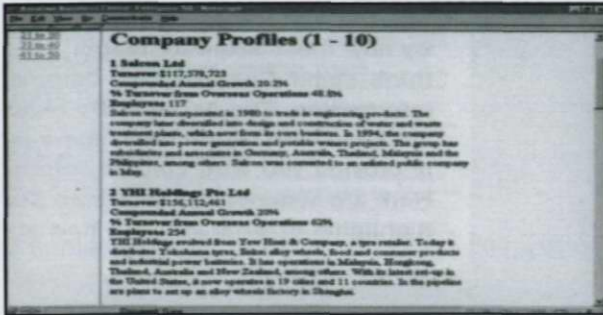


▲ <그림 2> Portion of AsiaOne Site Index

아시아의 정보 기술(IT)에 관심이 있다면, "This Is IT" 링크를 따라 가면 IT 뉴스,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업 안내문("Just In"), 특정 연재물 기사 아카이브와 비즈니스와 인터넷("비즈니스 통신")이 있다.

AsiaOne의 메인 페이지에서 "사이트 색인"을 아래로 스크롤 하여 보자(그림 2. 참조). "뉴스 스탠드" 열에서는 아시아 뉴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20개 가량의 정기 간행물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가운데 열의 "비즈니스 센터"는 우리가 목표에 가장 유용한 곳인 것 같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주식시장 정보와 팔라렘푸르,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 시드니, 웰링턴, 홍콩, 중국, 대만, 서울, 한국을 포함하는 다른 지역의 주식시장 정보도 있다. "IPO Watch"에는 최근에 목록에 올랐거나 오를 예정인 IPO에 관한 기사나 다른 IPO 뉴스가 들어 있다.

"50 기업" 링크를 통해 싱가포르의 개인 소유 기업인 50대 기업의 연간 목록이 들어 있는 섹션으로 갈 수 있다. 이 목록은 1995년에 시작되었고, 앤더슨 컨설팅, 비즈니스 타임즈紙,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편찬하였다. 가장 최근의 목록은 1998년 것으로 각 기업에 대한 짧은 프로필과 일부 기업에 관한 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1997년, 1996년, 1995년 수상자의 순위와 프로필도 포함되어 있다(그림 3. 참조).



▲ <그림 3> Enterprise 50 Company Profiles

“싱가포르 비즈니스 어워드”에는 올해의 경제인(1985-1997), 탁월한 수석 간부(1990-1997), 중소기업에 수여되는 엔터프라이즈 어워드(1986-1997)가 포함되어 있다. [주의: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10 기업과 같지 않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영향력 있는 경제인에 관한 배경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

“싱가포르 커넥트”는 기초 디렉토리 정보를 통해 이름별, 분야별, 제품별로 기업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동업자를 구하고 있는 기업들과 특정 무역 조합에 속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다.

“태국 수출 디렉토리”는 태국 국제 비즈니스 일간지인 Business Day에 의해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제품명이나 공급자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제품 검색에는 버그가 있는 것 같다. 무엇을 검색하든지 적중되는 자료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공급자 검색은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광범위한 정보를 찾아 주었다. 어떤 기업들의 경우에는 연락처 목록들만 있었고,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림, 제품 설명서, 기업 프로필이 있는 “전시실”과 그 기업의 홈페이지 링크가 나타났다.

AsiaOne 사이트는 페이지 전체에 광고가 가득하다는 점을 말해 두고 싶다. 그러나 팝업 광고는 없다. 그러므로 조금 지나면 그것들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

손가락들이 거닐게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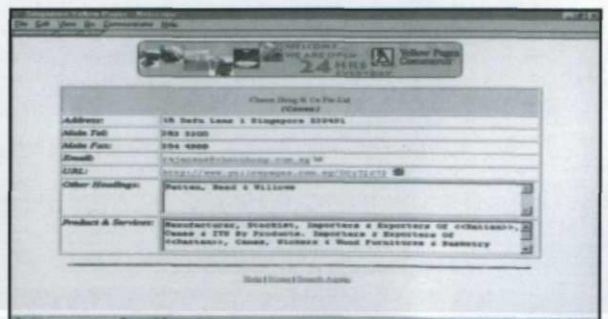
싱가포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싱가포르 옐로우 페이지 사이트 (<http://www.yellowpages.com.sg/cgi-bin/multi/syphome.htm?language=en&charset=ascii>)를 검토하기로 하자. 이것은 이제까지 필자가 본 URL 중에서 가장 어처구니없게 긴 것들에 하나이다. 일단 그곳에 가게되면, 그곳을 북마크 해두길 바란다. 그래야 다시 그것을 일일이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될 것이다. 메인 페이지에 있는 광고들은 다소 압도적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무료 정보에 대해 우리가 지불

해야 하는 대가인 셈이다. 좌측 상단을 보면 옐로우 페이지 정보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기업명, 제품이나 서비스명, 브랜드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기업에 연락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자료가 더 필요한 경우, 전자 우편 주소, 건물명, 전화 번호, 거리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다.

아시아 지역이 등나무 가구를 잘 만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므로 싱가포르의 등나무 가구 제조업체를 찾을 수 있을지 보기로 하자. 제품/서비스 목록에서 “등나무”란 단어를 검색하면 8개의 레코드를 얻게된다. 첫 번째 등록 항목으로 Choon Hong社가 보이는데 이 회사는 등나무 지팡이와 가구의 제조, 수입, 수출 회사이다.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 우편 주소가 목록에 올라 있다. 오른쪽에 있는 작은 집은 현재 사이트에서 그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로 곧장 링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그림4. 참조).

인터넷상에는 몇 개의 다른 아시아 옐로우 페이지가 있다. 어떤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다음 목록은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다.

- 오스트레일리아(<http://www.yellowpages.com.au/>)
- 중국(http://www.chinatone.com/category/yellowpage/frame_e.html)
- 홍콩(<http://www.yip.com.hk/eng/main.html>)
- 인도(<http://www.indiayellowpages.com/>)
- 인도네시아(<http://www.yellowpages.co.id/>)
- 한국(<http://www.ypkorea.com/>)
- 마카오(http://www.yellowpages.com.mo/e_default.asp)
- 말레이시아(<http://www.malasiayellowpages.com>)
- 뉴질랜드(<http://www.yellowpages.co.nz/>)
- 파키스탄(<http://www.jamal.com>)
- 대만(<http://yellowpage.com.tw/english/main.html>)
- 베트남(<http://www.vietnamonline.com/vnyppg/>)



▲ <그림 4> Sample Entry from Singapore Yellow Pages

행운의 쿠키가 필요한 때

이 연재물에 아시아태평양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중화민국(대만)에 대한 비즈니스 정보에 관심이 지대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처음에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중국에만 있는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트들은 전체가 링크가 안 되는 링크들만 있었다. 사실상 콘텐츠도 없는 사이트들이었다. 정부 정보국 사이트인 R.O.C. 사이트(<http://www.roctaiwan.org/>)마저도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주의: "대만 인터넷 사이트"를 클릭 하여 그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무역" 링크를 따라가 볼 만하다. 거기에서는 링크 목록이 있는데, 그것은 괜찮기는 하지만 짧다.)

필자는 대단히 실망하여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 중화민국에 대한 언급 하나 없이 이 기사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고, 눈치 빠른 연구자 독자들이 이 기사에 있는 다른 정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이것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요금을 지불하는 사이트를 통해 CETRA(중국 대외 무역 개발 위원회) 사이트(<http://mart.cetra.org.tw/home/homepage.asp>)를 발견하게 되었다.

CETRA는 비영리 무역 증진 기구로서 정부, 산업, 상업 조직들간의 결합 노력의 일환으로 1970년에 세워졌다. 이곳은 전 세계에 40여 개의 지부 사무소를 두고 있다. 미국에는 네 개가 있는데, 뉴욕, 시카고,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가 그것이다.

페이지 좌측에 있는 "비즈니스 가이드"를 클릭함으로써 이 사이트의 탐험을 시작해 보기로 하자. 이 섹션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료 사이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 무역" 섹션에는 주요 수입, 수출, 무역 파트너와 기본적인 무역 정보, 필독 기사 두 가지("대만에 팔 물건"과 "대만에서 살 물건")가 열거되어 있다. "대만 산업 보고서" 섹션에서는 다음 산업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제공한다(그림 5 참조).

- 가전 제품
- 하드웨어
- 자전거
- 운동 용품
- 자동차 부품
- 시계

- 선물용품과 가정용품
- 문방구
- 장난감

"비즈니스 가이드"의 나머지 부분에는 대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암시와 도움 말이 들어 있

Item	Value	Percentage
1. Cassette Recorders	105.6	8.7%
2. Color Televisions	71.53	5.9%
3. Radios	30.0	4.1%
4. Speakers	49.9	4.1%
5. VCRs	48.08	4.0%
6. Car Radios	34.13	3.6%
7. Laser Disc Players	30.69	1.7%
8. Calculators	12.0	1.0%
9. Amplifiers	1.35	0.6%
10. Black and White TVs	0.89	0.1%

▲ (그림 5) Excerpt from CETRA Business Guide

다. 해당 영역에는 비즈니스 카드, 비자, 교통편, 언어, 통화, 숙박시설, 전기 공급, 업무 시간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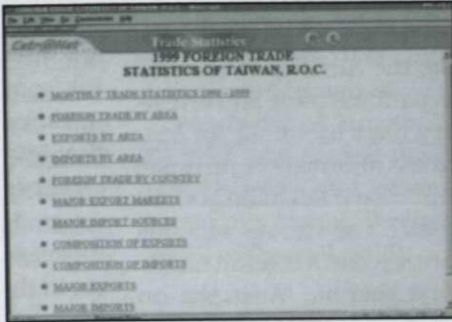
메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대만 상품 잡지"를 클릭해 보자. 여기서는 9개의 광범위한 산업 범주(기타 범주 포함)를 다루고 있다.

- 선물 용품, 문방구, 가정 용품
- 직물과 방직기
- 전자/통신
- 의료 장비
- 하드웨어와 가구
- 기계류
- 운동 용품과 자전거
- 자동차 부품과 오토바이
- 컴퓨터와 주변기기

각 산업 범주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진다. 각 범주마다 긴 개관이 제공되고, 일부 주도적 기업들에 대한 해설, 산업 전문기들과의 인터뷰, 무역 박람회 보고서들도 들어 있다. 이 섹션의 정보를 살펴보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 대만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정보기술 제품의 공급국이다. 미국과 일본만이 대만 보다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
- 미국은 대만의 의료 장비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다.
- 대만은 합성 섬유 생산에서 미국과 중국 본토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랭크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변의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전부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었다.)

정보 기술, 선물용품, 문방구, 혹은 전자 산업에 관한 보다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전시장(Showcases)"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들 "전시장"에는



▲ <그림 6> Taiwan Foreign Trade Statistics

보다 더 심도 있는 산업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내의 기업들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CETRA 사이트에는 “무역 통계” 섹션이 있다. 그림 6에 제시된 범주에서는 상세한 연간 통계자료를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볼 수 있다. 요약 통계를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전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만약에 제품이나 기업을 찾고 있다면, 제품명, 기업명, 브랜드, 범주별로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서는 부울 연산자 검색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FAQ” 섹션은 사이트를 검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검색 결과를 해석하는 법을 설명하는데 있어 아주 유용하다.

다른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돼서 여전히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한 경우, CETRA에서는 개별화된 시장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시장 조사, 무역과 마케팅 전략 컨설팅, 세미나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 있는 네 곳의 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의논해 보기 바란다.

비버리 힐의 거주자가 아니었다

필자가 맨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두 번째로 하게 됐던 프로젝트는 일본에 있는 여러 컨설팅 회사와 그 회사들과 관련된 분야(농업, 환경 등)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고객이 요구한 모든 상세한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틀에 박힌 온라인 검색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조금 헤매다가 몇 군데 전화를 걸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JETRO에 연락해보라고 했다. 그 때까지 JETRO에 대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단서도 없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이 비버리 힐에 거주하고 있는 거물의 이름을 잘못 발음했을 것이라는 것 정도였다. 그가 어떤 연고로 일본 컨설팅 회사에 대해 이논지에 대한 것을 필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무지를 드러내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터라 그 사람에게 그런 제안을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 다음 인터넷에서 JETRO를 검색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내 JETRO가 일본 대외 무역 기구 (<http://www.jetro.go.jp/top/index.html>)라는 것과 글자 그대로 정보의 보고라는 것을 알아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구식 전화기를 이용하여 연구를 해야 했다. 다행히 지금은 JETRO에 훌륭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즉 나열한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이트에는 좋은 정보가 아주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이다.

Focus Japan은 JETRO의 인쇄 출판 간행물의 하나로, 일년에 10회 발간된다. 그리고 발행된 책자에서 선택된 기사들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1998년 5월호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사들을 살펴볼 수 있다(인쇄물 예약 구독료는 일년에 40달러이다).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기사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 일본 금융 분야와 세계화
- 일본 기업과 외국 기업들의 인수합병 시도 점증
- 시장 경향: 눈 화장품-3년만에 수입이 배가
- 무역 통계- 명백한 하향추세에서 일본의 과잉생산

“일본 시장 보고서 연재물”은 32개의 광범위한 시장 연구는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검토해본 “채과 과일 통조림”이란 논문은 25페이지 정도였다. 그 보고서들은 모두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다. 2년이 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산업의 범위가 대단히 방대하였고, 거기에는 비조제 약품, 보석, 자동차 부품 시장, 의료 장비, 퍼스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섹션에서는 검색할만한 시장 보고서 데이터베이스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350여 개의 시장 보고서가 들어 있다. 검색과 마찬가지로 제품 범주별로도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다. 보고서의 길이는 상당히 길고 정보가 상당량 들어 있다. 이것들은 잘 알려진 시장 조사 회사들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보고서들과 겨룰만하다. 유일한 흠이라면 일부 보고서가 다소 오래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달리 이용할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 반드시 여기를 보기 바란다.

일본에는 21 외국 엑세스 지대(FAZs)가 있고, JETRO 사이트에서는 그 모든 것들에 관한 아주 완전한 세목들을 제공하고 있다. 적용 가능한 법률이 설명되어 있고, 21FAZs 각각의 온라인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토픽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공항과 항만의 특성
- FAZ 시설 개요
- FAZ 영역 운송 액세스
- FAZ 영역에서의 외국 무역
- FAZ 영역 주변의 프로젝트

이 사이트에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 있다.

- 사이버 전시장. 일본 수입업자들이 외국의 수출업자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 여기서 다루고 있는 두 분야는 건물 재료, 그리고 자택 요양과 갱생이다.
- 잠재적 수입업자.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사용하는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위치, 활동, 연간 판매량, 자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준이 아주 명확하다.
- 기술 연합 증진 프로그램(TTPP). 합작 투자, 제품 허가, OEM 생산, 합작 연구개발, 기술 수입과 수출을 위해 일본에서 첨단 기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함.
- 일본 정부 조달. 정부 조달 절차 설명과 정부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 일본의 연구에 기초한 산업 데이터베이스. 기업별 또는 지역별로 검색 가능. 관련 링크 섹션이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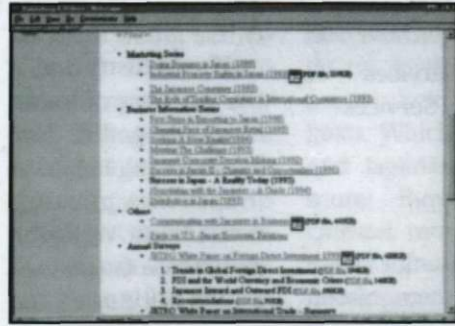
“일본 참가 무역” 섹션에는 몇 가지 흥미 있는 문서들이 있다. 일본 접근에 관한 현실적 조건 고찰은 실제로 주택공급, 의료장비, 화학제품, 화장품, 가공식품, 건축 재료, 제약, 전기통신 장비 산업을 망라하는 일련의 보고서이다. 산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전부 내지는 일부가 토의된다.

- 그 산업이 연구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
- 조사된 제품 범주
- 그 산업에 대한 공식 규정
- 분배와 비즈니스 관행
- 다른 나라들과의 가격 비교

또한 이 섹션에는 일본 자동차 수입업자 조합의 보고서들도 실려있다. 이들 보고서는 “새로 등록된 수입 자동차의 수”로서 매달 발간되며 1998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다.

“출판 간행물과 비디오” 섹션에는 구입할 수 있는 항목들과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료 간행물에는 일본에서 사업하기, 일본에서의 산업 소유권, 일본 소매업의 변화 양상, 일본의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그림 7 참조).

JETRO 사이트에 관해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이 사이트가



▲ (그림 7) Free Publications Available from JETRO

상당히 번덕스럽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가지고 있는 56k 모뎀으로 이 사이트의 페이지들은 꿈결처럼 로드되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웹 페이지 로드가 너무 천천히 이루어져서 커피를 한 잔 타 가지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로딩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트를 닫았다가, 몇 시간 기다린 다음에 다시 시도했다. 그 사이트에 다시 돌아오면 대체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곤 했다. 사이트가 느려 터졌다고 컴퓨터에 대고 소리를 지를게 아니라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시도하기 바란다.

대륙에서 호주로

Austrade는 호주 정부의 국제 무역 투자국으로 유용한 호주 비즈니스 정보 사이트인 Austrade 온라인 사이트(<http://www.austrade.gov.au/International>)를 가지고 있다. 이 사이트의 다양한 섹션들은 왼쪽에 있는 열에 열거되어 있다. 첫 번째 섹션 “Australia on Display”에서는 21개의 범주에서 기업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다.

- 농업, 임업, 어업
- 소매 무역
- 자산과 비즈니스 서비스
- 건강과 지역사회 서비스
- 광업과 에너지
- 관광사업
- 음식과 음료
- 운송과 저장
- 섬유와 의류
- 금융과 보험
- 신발류와 피혁
- 전기통신
- 제조업
- 멀티미디어

- 인쇄, 출판, 기록 매체
- 방위 산업
- 물과 환경
- 건축업
- 문화와 레크레이션 서비스
- IT

각 범주에는 다수의 하위 범주가 있어 검색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 목록에는 세 개의 섹션이 있다. “제품과 서비스”, “기업 메시지”, “연락처 목록”.

다음 줄에는 몇몇 호주 산업의 소개가 들어 있는 “능력 전시장”이 있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산업별로 다양하지만 대체로 개관, 선도적인 제조 회사, 시장 점유율, 제품, 서비스, 그 산업의 가능성, 주요 연락처, 산업 링크들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에서의 투자” 섹션에서는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 주고 있다. “기업들이 호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인센티브에 대한 개요, 호주의 세계 개혁과 그것이 수출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갖는 의미는 “호주에서의 수입” 섹션에 논의되어 있다. 링크들을 통해 여러 정부 기관에 연결하여 앞으로의 정보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Austrad 온라인 사이트에서 대답을 얻지 못한 질문들은 전 세계의 Austrad 사무소에 연락을 할 수 있다. 미국에만도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리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이렇게 여섯 군데가 있다.

캐나다를 경유하는 태평양

캐나다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산업/무역국은 훌륭한 온라인 가이드를 모아 두었는데, 인도네시아와의 비즈니스 거래 사이트(<http://www.prica.org/commerce/index2a.html>)가 그것이다. 이 사이트 자체에서는 아무런 부가 가치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링크들과 더불어 ‘구매자 가이드’가 로드 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 월간 통계 고시. 몇 개의 통계 보고서와 정치적 이념이 들어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 개발 정보국으로의 링크.
- 인도네시아 수출업자 디렉토리. 일치되는 시스템 종별 혹은 기업 이름별로 기업 검색. 디렉토리 정보 제공. (HS 코드 검색 링크 제공).
- 인도네시아 수출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기업 인터넷 사

트로의 링크 제공.

- 인도네시아 수출업자 프로필 검색. 수출업자를 검색할 수 있는 수출 장려 국가 기관으로의 링크.
- 인도네시아 – Product.com. 인도네시아의 상품과 서비스 검색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이트.
- 인도네시아 무역 지대. 무역 데이터, 경제 통계, 추세, 시장 연구 보고서, 세법.
- 자카르타 증권 거래소
- APEC 관세 데이터베이스. 관세표 다운 받기가 포함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 상품 조합. 산업 조합의 광범위한 목록과 연락처 목록.
- Indoexchange. 시장 연구 논문, 경제 추세, 자본 시장 자료.
- 인도네시아 중앙 통계국. 경제 통계, 여론 조사 정보, 지역 통계 프로필.

여행 마무리

여러 달이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국제 비즈니스 세계 일주 여행을 끝마쳤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찾는 것은 결코 기계적이 될 수는 없지만, 검색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배웠다. 검색을 할 때에 어떤 사이트의 출처를 확인할 때까지는 상당히 회의적이 되어야 한다. 항상 상공 회의소, 미국 상업국 소스, 엘로우 페이지 디렉토리, 정부 사이트를 찾기 바란다. 그리고 훌륭한 국제 디렉토리 사이트를 찾게 되면, 북마크 해 두자!

우리의 여행이 즐겁고 유익했다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필자로서는 이것이 상당한 모험이었다.

상공 회의소—최후의 한 순간

지금쯤 대부분의 연구자 독자들은 국제 비즈니스 정보를 찾기 시작할 때 즉시 상공 회의소를 생각해야 하는 지점에 도달했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상공 회의소 사이트들은 유용한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곳에서는 인쇄물 자료가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어떤 곳에서는 연락 자료만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음은 이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 상공 회의소의 자료들이다.

호주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com.au/>)

두 개의 인쇄 간행물을 주문하기 위한 설명과 수단. 미국/호주 무역 디렉토리와 호주에서의 비즈니스. "호주 정보"와 "자원" 섹션 링크 검토.

괌 상공 회의소(<http://www.guamchamber.com.gu/>)

출판 간행물 판매. "비즈니스 지원과 서비스" 섹션. 사이트 검색 가능.

홍콩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org.hk/>)

기능의 대부분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무료). 훑어보기식 뉴스 기사 검색 기능.

한국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korea.org/>)

마케팅 통찰 보고서 목록을 미국 대사관, AMCHAM 저널 발췌 기사, 출판 간행물 구입, 무역 정책 변화에 관한 정보, 새로운 법률, 기업 관계 출판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미 말레이시아 상공 회의소(<http://www.jaring.my/amcham/>)

출판 간행물 구입, 상업 개관 말레이시아/미국 전자 산업 개관, 정부 연락처 목록.

미국 상공 회의소-중화 인민 공화국(<http://www.amcham-china.org.cn/>)

소재지 문서, 중국내 미국 기업에 관한 백서, 유용한 링크들.

상하이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shanghai.org/>)

상하이에서의 비즈니스 거래 전문. 중국 링크들, 월보(PDF 형식,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림), 출판 간행물 판매.

싱가포르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org.sg/>)

소재지 문서(토피에는 부패 관행, 미국 수출 증진, 미국 싱가포르 조세 조약이 포함되어 있다), 유용한 링크들.

타이베이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com.tw/>)

P.O.C.정부는 대만에서의 비즈니스 거래 가이드 발췌록, 대만 일별(연간 백서), 무역 기회(매달 업데이트), 기업 검색 기능 업데이트한다.

태국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th.org/>)

태국 비즈니스 가이드(태국 정부에 의해 발간됨), 소재지 문서, 미상공 회의소 회원 목록, 유용한 연락처, 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다.

베트남 소재 미국 상공 회의소(<http://www.amchamvn.com/>)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거래, 전반적인 수출입 문제, 몇몇 산업 개관.

BIG 비즈니스 가이드

국가 비즈니스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훌륭한 정보 소스이다. 한 국가 이상의 가이드를 가진 사이트를 찾는 것은 덤으로 얻는 보너스이다. 아시아 BIG 사이트(<http://www.asiabig.com/>)는 InfoAd 출판 컨설턴트들과 Sing Tel 옐로우 페이지가 합작하여 만들었다. 이들 둘 다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홍콩, 자카르타, 클렝 벨리(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다루고 있다. BIG는 이들 각 나라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즈니스와 산업 가이드를 나타낸다. 각 나라의 가이드에는 같은 유형의 정보가 포함된다. 그러나 필자가 많은 국제 사이트를 통해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이트가 전부 예상했던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다.

가이드는 다양한 국가 특정 비즈니스 정보 기사와 이름이나 종류별로 기업을 찾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만들어졌다. 시작 페이지에서 국가를 선택하고 난 후에, 왼쪽 프레임에서 "비즈니스 정보" 링크를 클릭하여 기사들을 찾을 수 있다. 그 기사들은 시기 적절하고 유익하였는데 제목들은 이랬다. 적은 자본 예산으로 기업을 시작하고 1999년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기(싱가포르), 미래에 대비한 통합과 서비스 분야는 보다 고고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홍콩), 선형 경제 예측과 멀티미디어 슈퍼 회랑(말레이시아). 유감스럽게도 어떤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 섹션에서 말레이시아 기사들을 반복해서 찾아준다. 필자로서는 이 사이트에서 정확한 기사가 빠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코딩 에러가 있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

"기업 찾기" 섹션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능을 발휘했다.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 섹션이 업데이트 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많은 무료 사이트들이 그렇듯이 제공되는 정보는 최소한이고 대체로 연락 자료들뿐이다. 또한 어떤 기업들은 제품을 좀 더 잘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픽을 포함시키고 있다.

아시아 BIG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는 광범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의 비즈니스 분위기에 관한 최근 기사가 필요할 경우, 시간을 내서 기꺼이 그곳을 다시 한 번 둘러볼 생각이다. 

■ 웨리 R. 린자 / 글로벌 인포리소스社 사장